

두경부 수술후 발생한 섬망(postoperative delirium)의 임상적 고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재혁 · 박병일 · 심우영 · 노환중
고의경 · 왕수건 · 전경명

수술후 발생한 섬망은 일시적인 인지기능의 손상과 의식장애가 특징인 증후군으로 급성이며 병의 과정이 유동적이다. 이는 수술후 이환율 및 합병증의 증가와 입원기간의 연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연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부산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후두적출술 환자 216명과 소위 COMMANDO 수술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ostoperative delirium(POD)은 후두적출술 환자에서는 27례(12.5%), COMMANDO 수술 환자에서는 3례(9.3%)에서 나타났으며 양자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2) 전체 환자의 평균연령은 58.0세 이었고, POD 발생 환자의 평균연령은 64.2세로 연령이 높을수록 POD 발생이 많았다($p=0.002$).

3) POD가 남자의 경우는 12.2%(12/220), 여자의 경우는 10.7%(3/28)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자간의 차이는 없었다($P>0.05$).

4) POD 발생에 영향을 주는 위험인자는 술전 고령($P=0.002$), 고혈압($P=0.003$), 정산과적문제($P=0.013$), 과량음주($P=0.045$)와 술후 산소포화도 감소($P<0.001$), 헤모글로빈치의 저하($P<0.001$), 백혈구 상승($P=0.017$) 등이었다($P<0.05$).

6) POD 발생 환자의 경우에서 창상감염, 피부괴사, 인두피부누공 등의 술후 합병증의 빈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다.

비강에서 발생한 다형성세망증의 CT소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병리과학교실, 치료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남 준

목적 : 동양인에 많고 중앙상기도와 구강에서 주로 발생하며 예후가 나쁜 질환으로 임파관식형 질환인 다형성세망증(polymorphic reticulosis)은 그간 중심성 악성세망증(midline malignant reticulosis)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명명되어 왔으며 최근 병리학적으로 말초성 T-세포 임파암과 같다고 정리되었다. 저자들은 다형성세망증의 CT를 분석하여 그 소견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1988년 1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수술과 조직생검을 통하여 면역조직병리학적 방법으로 확인된 68예의 다형성세망증중 비강에서 생긴 51예의 치료전 CT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든 예에서 조영증강을 시행하였고 시상면 촬영을 하였다. CT상 발생부위, 주위 침범 및 파급, 밀도, 골변화 등을 중심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 51예는 남자 32명, 여자 19명으로(남여비 1.7 : 1) 평균나이는 40세이었고(연령분포는 17세~69세) 40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흔한 증상으로는 비폐색 25예, 인후부 작열감 13예, 통증과 부종 6예 등이었으며 발생위치는 비강 19예, 비강과 비중격 17예, 비중격 5예 등의 순이었고 6예에서는 양측 비강을 모두 침범하였다. 나타난 CT 소견으로는 제일 흔하게 침범부위의 다양한 정도의 연조직 비후가 32예 이었고 이중 14예에서는 불규칙한 모양의 변연을 보였다. 주위의 골파괴는 26예에서 보였는데 상악동내벽, 안와벽의 순이었다. 종양 내부의 방사선학적인 괴산 낭성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비강외로 연조직 비후가 퍼져나가 외비나안면등의 연조직종창이나 침윤의 소견을 많은 예(20예)에서 보였다. 특징적으로 비중